8. 남이 모르는 선행

孫叔敖

현대 사회는 자신의 작은 장점도 알려야 하는 세상이다. 이런 시대에 남이 모르게 하는 선행은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손숙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.

孫叔敖爲嬰兒에 出遊而還하여 憂而不食이라.

其母問其故한대 泣而對曰 "今日吾見兩頭蛇하니

恐去死無日矣니이다." 母曰 "今蛇安在오?"



새로 배울 한자

*敖 오 놀다　　*嬰 영 어린아이　　還 환 돌아오다　　埋 매 묻다

- 安의 쓰임을 알 수 있다.
- 문장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.

曰 "吾聞見兩頭蛇者死니이다. 吾恐他人又見하여
已埋之矣니이다." 母曰 "無憂하라. 汝不死하리라.
吾聞之한대 有陰德者는 天報以福이라." "몽구"



읽고 풀이하기



孫叔敖爲嬰兒, 出遊而還, 憂而不食.
손숙오가 어린아이였을 때

*孫叔敖(손숙오): 초(楚)나라 부국강병에 공헌한 이름난 재상.

其母問其故,
이유, 까닭

*故: ① 일 事故(사고)
② 옛 故事(고사)
③ 죽다 故人(고인)
④ **까닭** 無故(무고)

泣而對曰: "今日吾見兩頭蛇, 恐去死無日矣."
머지않아
대답하다 죽다

울면서 대답하였다. "오늘 제가 머리 둘 달린 뱀을 보았으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."

*去: ① 가다 退去(퇴거)
② 없애다 除去(제거)
③ **죽다**

母曰: "今蛇安在?"
어디

*安: ① 편안하다
② **어디**

曰: "吾聞見兩頭蛇者死. 吾恐他人又見, 已埋之矣."
이미 그것(뱀)

母曰: "無憂. 汝不死. 吾聞之, 有陰德者, 天報以福."
~마라 너 몰래 베푼 덕 ~으로써

어머니가 말했다. "근심하지 마라.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. 내가 들으니, 몰래 베푼 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써 보답한다고 하였다."

내가 만약 손숙오의 어머니라면 아이를 위해 어떤 말을 해 줄지 빈칸을 채워서 발표해 보자.

생각 넓히기

孫叔敖爲嬰兒, 出遊而還, 憂而不食.

其母問其故, 泣而對曰: "今日吾見兩頭蛇, 恐去死無日矣."

母曰 : "今蛇安在?"

曰 : "吾聞見兩頭蛇者死. 吾恐他人又見, 已埋之矣."

母曰: "　　"

인문학 더하기

상상 속의 동물인 용과 관련된 어휘

용은 12간지 중 유일하게 실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며 임금을 상징한다. 임금이 입는 옷은 곤룡포, 임금의 얼굴은 용안(龍顔), 임금의 자리는 용상(龍床),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노래는 용비어천가(龍飛御天歌)이다.

- **용수철**(龍鬚鐵): 용의 수염은 꼬불꼬불하며 강한 탄성(彈性)을 지녔다 하여, 용의 수염처럼 동그랗게 말아 올라간 철선을 용수철이라 이름 붙였다.
- **역린**(逆鱗): 물고기나 동물의 비늘이 반대 방향으로 난 것을 말한다. 용의 턱 아래에는 거꾸로 난 역린이 있다고 한다. 용은 성격이 온순하지만 역린을 건드리면 크게 노하여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. 역린은 신하가 잘못을 범해 임금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.
- **점액**(點額): 이마에 점이 찍힌다는 뜻으로, 용문을 오르려다가 떨어져 이마에 점이 찍혀 하류로 떠내려간다는 데서 유래한다. 점액(點額)은 과거에 낙방한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.

어휘력 키우기



1 '頁'이 들어간 한자

頭 두 머리 _ 頭痛 두통
項 항 항목 _ 項目 항목
願 원 원하다 _ 祈願 기원
頌 송 기리다 _ 贊頌 찬송
頻 빈 자주 _ 頻繁 빈번
煩 번 괴로워하다 _ 煩惱 번뇌

2 모양이 비슷한 한자

憂 우 근심하다 _ 憂患 우환
優 우 뛰어나다 _ 優劣 우열
埋 매 묻다 _ 埋葬 매장
理 리 이치 _ 窮理 궁리
怒 노 성내다 _ 憤怒 분노
恣 자 방자하다 _ 放恣 방자

3 뜻이 비슷한 한자 _ 보다

看 간 _ 看板 간판 看護 간호 看破 간파
視 시 _ 錯視 착시 凝視 응시 視線 시선
察 찰 _ 警察 경찰 監察 감찰 檢察 검찰

4 한자의 활용

迷 미 미혹하다 _ 迷惑 미혹 迷宮 미궁 迷兒 미아
還 환 돌아오다 _ 返還 반환 還給 환급 還國 환국
對 대 대하다 _ 對策 대책 對偶 대우 對局 대국

새로 배울 한자

項 **항** 목, 항목
繁 **번** 무성하다
葬 **장** 장사 지내다
祈 **기** 빌다
煩 **번** 괴로워하다
窮 **궁** 다하다
頌 **송** 기리다
惱 **뇌** 괴로워하다
憤 **분** 성내다
贊 **찬** 돕다
優 **우** 뛰어나다
恣 **자** 방자하다
頻 **빈** 자주
劣 **렬** 못하다
板 **판** 널빤지

확인하기

[1~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孫叔敖爲嬰兒, 出遊而還, 憂而不食. 其母問其㉠故, 泣而對曰: "今日吾見兩頭蛇, 恐去死無日矣." 母曰: "今蛇㉡安在?" 曰: "吾聞見兩頭蛇者死. ㉮吾恐他人又見, 已埋之矣." 母曰: "㉯無憂. 汝不死. 吾聞之, 有陰德者, 天報以福."

1. ㉠과 ㉡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?

	㉠	㉡
①	옛날	어디
②	옛날	편안하다
③	옛날	차라리
④	까닭	어디
⑤	까닭	편안하다

2. ㉮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

① 吾 ② 恐 ③ 他 ④ 又 ⑤ 見

3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가 ㉯와 같이 말한 이유로 옳은 것은?

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
②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 냈기 때문에
③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
④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
⑤ 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봤기 때문에

凝 **응** 엉기다 | 警 **경** 경계하다 | 檢 **검** 검사하다 | 迷 **미** 미혹하다 | 宮 **궁** 집
返 **반** 돌아오다 | 偶 **우** 짝 | 局 **국** 판